

완도군, 공무원 대상 '청림사진관·도전 청림 골든벨' 눈길

청림문화 확산...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모든 공직자 청림 실천에 동참해주길"

완도군이 청림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도전 골든벨'과 '청림사진관'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공간·소통' 청림 주간'을 통해 세대별, 직렬별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반부패 시책을 체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도전 청림 골든벨'과 '청림을 기록하는

시간 '청림 사진관' 등에 대한 참여도가 높았다. 청림 사진관은 '청림'이라는 무거운 주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MZ 세대가 즐기는 '인생 네 컷'에서 착안, 동료들과 청림을 다짐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 가상의 부패 상황을 메시지로 전달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청탁 금지제 위반 모의 실험'

고 실험'을 진행했다.

이어 청림·반부패 관련 법률과 규정을 퀴즈로 풀어보는 '도전! 청림 골든벨'도 운영했다.

골든벨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응원 속에 1등은 보건행정과 강관기 주무관, 2등 고금면 김진호 팀장, 3등 고금면 한대동 주무관이 차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청림은 시대나 특정 영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덕목이다"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청림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강진원 군수, 조생종 벼 수확 현장 방문

강진원 칠량면 현천마을 찾아 농업인 위로



강진원 강진군수가 수확철을 맞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로했다.

지난 6일 본격적인 가을철 영농활동에 여념이 없는 조생종 벼 수확 현장을 찾은 강 군수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가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민생을 살폈다.

조생종 벼 수확 현장에서 만난 칠량면 현천마을 김중진씨는 "집중호우와 잦은 강우로 벼 농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바쁜 군정에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와 고민을 함께해줘 힘이 된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올해 지속적인 강우와 폭염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확의 결실을 위해 노력해준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확을 잘 마무리하기 바라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소득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육묘단계에서부터 육묘지원사업비 14억3,000만원, 새청무 벼 3,000ha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 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판매 확대를 위해 강진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쌀 소포장지 제작비 지원사업 등에 4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주도까지 쌀 판매 시장 개척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조생종 벼 시장 매입 가격은 40kg당 6만5,000원 선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배추재배 농가 경영지원비 인상 지급

관내 1,336 농가...전년대비 ha당 4만원 인상한 25만원 지원

진도군이 배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뿌리혹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경영지원비는 관내 1,336농가, 1,270ha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ha당 4만원이 인상된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추 뿌리혹병은 배추의 뿌리에 혹을 만

들어 잔뿌리의 성장을 막아 심한 경우에는 배추가 말라 죽게 되는 치명적인 병으로 정식한지 20일 이내에 감염되면 대부분 수확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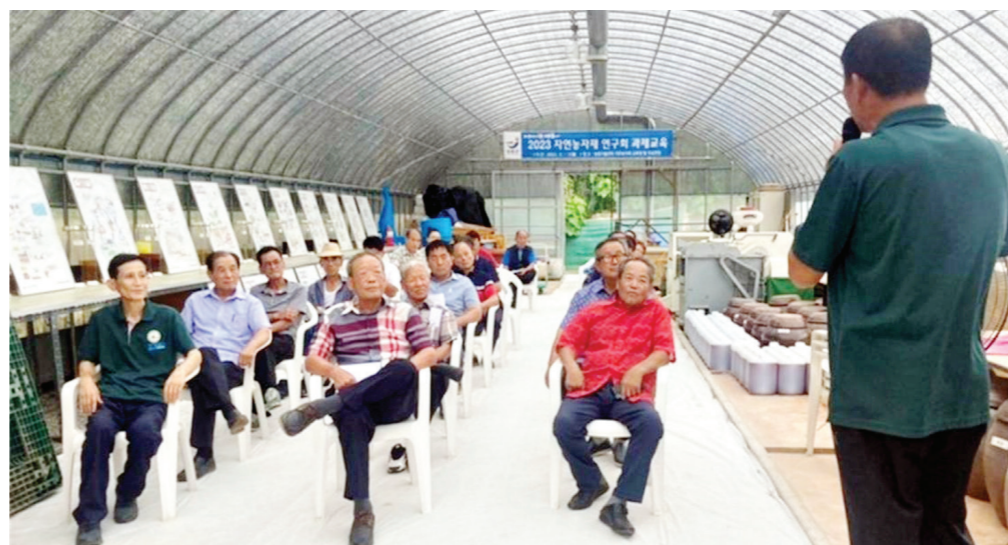
군은 올해 농약값 인상률을 반영해 전년대비 ha당 4만원을 인상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배추 뿌리혹병의 병원균은 최대 10년간 토양에 남아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식 전 예방적 방제가 꼭 필요하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배추 생육 저하와 병해충 예방을 위해 현장 기술 지원단을 운영해 재배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와 예방 살포 등을 통해 뿌리혹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진도군, 진도개 전문 수의사 채용 진료 시작

진도군이 진도개 메디컬센터에 진도개 전문 수의사를 채용해 진료를 시작했다.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 양육 농가에 진도개에 대한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천연기념물인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진도군에 개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이 없어 양육 농가들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 양육 농가에 편의 제공과 경제적 부담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개 메디컬센터는 지난 2011년에 진도읍 동외리 일원에 건축해 1층 진도개 메디컬센터, 2층 사무실과 연구실, 3층은 다목적강당을 설치해 진도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료를 하고 있다.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전문 수의사 채용으로 진도개의 관리·보호 체계 개선으로 진도개 양육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도개 혈통 관리와 명진 진도개의 위상을 이어 나가겠다"며 "추후 진단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해남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해남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보장을 위해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어가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면 90%를 지원하여 납치 등 20종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해남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김, 뱀장어, 전복종자 등 3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의 가입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요품목인 납치·전복·전복종자·다시마 가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보험은 각종 재해 태풍, 해일, 염분 등에 의한 수산질병을 보상하게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내 주소지의 해남군수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 자연농자재 연구회 교육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자연농자재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연농자재연구회는 각읍면 친환경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20여명의 농가로 결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장흥군 친환경 농업 실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천연 살균효과가 있는 유

황, 천연 살충효과가 있는 오일, 친환경 유기농 작물 보호제인 황철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론교육과 자율토론을 통해 자기에서 친환경 농자재를 직접제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천연농약 제조 및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